

보도시점 2026. 6. 15.(월) 0시 배포 2026. 6. 11.(목) 15시
엠바고 준수 바랍니다

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

- 재외동포청, 2026년 6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로 故이수길 의학박사 선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한·독 양국 인적·문화적 교류의 토대가 된 파독 간호사 사업을 주선한 故이수길 (1928-2023) 박사를 2026년 6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한국 간호사의 독일 진출 길 열어
 - 이수길 박사는 1960년대 독일 마인츠 대학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며, 독일 의료계의 인력 부족 상황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.
 - 1965년 그는 독일 내 10여 개 병원에 직접 서신을 보내 한국 간호사 채용 의사를 타진했고, 우리 정부와 협의해 간호사 파독을 주선했다. 그 결과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처음 독일로 향했다.
 - 당시 해외 출국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, 그는 채용 과정부터 비자 발급까지 직접 챙기며 간호사들이 무사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.
 - 또한, 이 박사는 파독 간호사들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,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.

- 이후 1975년까지 1만여 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됐고, 그들이 송금한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과 산업화 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. 또한,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 내 동포 사회를 형성하며, 한·독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큰 역할을 했다.

□ 인도주의적 실천과 한·독 교류 기여

- 이 박사는 독일 마인츠에 한독협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맡아 양국 교류에도 힘썼다.
- 또 한국의 선천성 심장기형 아동 30여 명이 독일과 미국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, 장애아동 지원단체인 ‘한국소아마비협회’의 전신 ‘삼애회’ 발족에도 기여하는 등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나섰다.
-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는 198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고, 1998년 독일 정부는 국가공로십자훈장을 수여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파독 간호사들은 떠나면 타국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”이라며, “이수길 박사는 그 길을 처음 열고 뒤에서 든든히 지원한 숨은 주역이었다”고 말했다.

- 이어 “올해는 파독 간호사 독일 진출 60년이 되는 해”라며 “이수길 박사와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6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: 2026년 6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 상세 자료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삼주 (032-585-3154)
		담당자	주무관	우지연 (032-585-3161)